

자기 소개서

소 속		직 위		성 명	
-----	--	-----	--	-----	--

1

지원자 주요 경력



생년월일

1900년 0월 00일생(만00세)

학 력

- 00초·중·고등학교 졸업
- 00교육대학교 00학과 졸업(교육학사)
- 00대학교 00학과 졸업(석사)

교육 경력

- 교사경력(28년 8개월)
00시 00초, 00초, 00시 000초, 00초, 00초, 00시 00초, 00초, 00초
00시 00초, 00초, 00초(1988.07.10.~2017.02.28.)
- 교감경력(6년)
00시 00초, 00초(2017.03.01.~2023.02.28.)

표창 경력

- 정부모범공무원 국무총리 표창(2003년)
-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표창(2회) : 스승의날 표창(2006), 교원능력개발평가 표창(2007)
- 교육감 표창(13회) : 과학교육유공, 연구학교운영, 창조21축제운영, 학교안전유공 등
- 교육장 표창(20회) : 교수학습개선, 지역교과서 자료개발, 특기·적성교육 등

교육활동

- 혁신학교 교감으로 5년 근무(2017~2021년) : 혁신교육에 대한 이해 및 경험 풍부
- 초등예비교사 현장실습 협력학교 운영(2017~2019)
- 교실수업 개선 및 연구 실적
 - 교육자료전시회 5회 입상(1등급 4회 수상), 과학전시회 2회 입상
 - 특별교사제 연구대회 1회, 인성교육실천사례 1회, 수업실기대회 2회(1등급 1회 수상)
- 연구시범학교 운영 실적 : 7개교 총 11년 근무
 - 교육부지정 독서교육 정책연구학교 연구부장 역임(1999~2000)
 - 경기도교육청지정 시범학교 및 선도학교 연구부장 역임(2004~2007)
- 교실수업개선 유공교원 해외 연수(2006.05.27.~2006.06.05.) - 북유럽 4개국 교육 탐방
- 지역교과서 교재개발(4회), 경기도교육청 자료개발(2회) 등 자료개발 실무지원단 활동



배곧라운초등학교는 2018년 개교한 신설학교로 그간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 교직원들과 학부모님들께서 합심하셔서 신설교의 안정적 운영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교육활동을 정상화하여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었고, 이제 명실상부한 시흥시의 중심학교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도 교육가족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여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학습력 제고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배곧라운초등학교의 저력과 힘은 저에게는 함께하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희망의 학교가 되었습니다.

배곧라운초의 **교육비전**은 『**꿈**과 **사랑**이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입니다.

저는 학교장으로서의 **교육철학**의 핵심을 「**학생의 행복**」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의 역할은 행복한 학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배곧라운초가 추구하는 행복교육은 교육공동체의 행복도 학생이 행복할 때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일상 속에서 친구, 선생님들과 소소한 기쁨을 만끽하며 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교육이고 교직원들의 행복도, 학부모님들의 행복도, 지역의 행복도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교 경영의 지향점을 ‘인간 중심’, ‘**학생 중심**’에 두고, 배곧라운 교육공동체와 함께 만들어나겠습니다.

첫째, 학생이 중심이 되어 자신의 꿈을 펼쳐가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선생님들이 열정을 다하여 신바람 나게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학부모가 안심하고 신뢰하며 참여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배곧라운초에 공모교장으로 근무하게 될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배곧라운교육의 저력과 힘을 바탕으로 배곧라운 공동체 모든 분들과 힘을 합쳐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지극히 평범하셨지만 가족과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셨던 부모님!

우리 세대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어린 시절 동족상잔의 6·25전쟁을 겪으면서 암흑한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암울했던 그 세월을 함께 겪은 고통을 겪어낸 나의 아버지,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일제 강점기 일본에서 출생하여 해방이 되자 조국으로 돌아 오셨고, 어머니는 황해도 신의주에서 출생하여 해방이 되면서 가족과 함께 서울로 남하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가정과 자식 삼형제를 키우시면서도 술과 담배를 평생 하시지 않으셨던 건강한 분이셨는데 작년 11월 초 갑자기 찾아온 병마로 작고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려운 가정 형편의 막대로 태어나 많이 배우시지는 못하셨지만 배워야 산다는 신념과 책임감이 강한 분이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에게 교장이 언제 쯤 되는거냐고 묻곤 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아버지께 교장이 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올해 85세인 어머니는 평생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성경책을 보시고 자녀들을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십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목소리에 힘이 넘치시고 잘 웃으십니다. 일주일 두 세 번은 경로당에 나가서 이웃 노인분들과 음식도 나눠 드시고 담소를 즐기십니다. 어머니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신앙심이 깊으셨고 어려운 살림살이에든 늘 자식들 뒷바라지에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50대 후반이 되니 어머니의 강한 의지와 삶의 자세를 존경스럽게 바라보게 됩니다. 지극히 평범하셨지만 가족과 자식들을 위해 사랑하시고 희생하셨던 나의 부모님들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성장하였습니다.

❧ 교직의 길로 이끌어주신 나의 선생님!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셨던 최○○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 나의 장래나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초임 교사인지 몰라도 당시 선생님께서 권위 의식이 없으셨고 학생들과도 잘 어울리시고 무척 친근하셨습니다. 선생님과 만남은 제 인생에 있어서 축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학년 때 반장이었던 나는 선생님과 학급 문제 등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종종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은 저에게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셨는데, 나의 진로에 생각해 본적이 없었기에 어떨결에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공무원이 되고 싶냐고 재차 물으셨는데,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공무원 중에 선생님이 최고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에 진학하여 선생님이 되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선생님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나의 진로는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미래 진로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던 나에게 꿈이 생겼다는 것은 내 일상생활에서도 크나큰 변화였습니다. 선생님처럼 학생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한 마디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과 모든 어려움을 견디며 학생들과 함께하셨던 최○○선생님께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서툴지만 열정과 젊음이 있었기에 멋졌던 새내기 교사 시절

교단에 입문한 지 어느덧 34년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88년 서울올림픽이 개최되던 해 7월 녹음이 짙어지고 초여름이라고 어느 날 용인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과 만났습니다.

지금은 희미한 기억이 되었지만 겨울이면 조개탄 난로 위에 도시락을 올려놓고 그렇게 점심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추억은 마냥 아름다운 것이라 그럴까? 그때 그 아이들은 요즈음 아이들보다는 훨씬 순수했고, 예의 바르고,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새내기 교사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어려웠고 모든 것이 서툴기는 했어도 나의 곁에 나를 바라보는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나를 반겨주는 우리 아이들이 있었기에 날마다 행복한 마음으로 수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졸업 30주년 기념이라고 연락이 와서 한 제자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제자에게 나를 어떤 선생님이로 기억하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제자는 내가 무얼 가르쳐주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지만, 선생님과 체육 시간에 축구 하던 것과 기타를 치시면서 친구들과 다 함께 노래를 부르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초에서 교감으로 재직할 때 초등 예비교사 실습학교를 3년간 운영하면서 예비교사들에게 이런 말들을 자주 해주었습니다. 초임 학교에 발령받으시면 학생들이 평생 기억이 남을만한 재미있는 활동을 많이 하시라고 지도·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기본생활습관 지도를 통해 올바른 인성교육 전개

시간이 흐르고 학교생활이 반복되며 어느새 학교가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을 무렵, ○○으로 전근 신청을 내고 발령장 받아 찾아간 곳은 바로 ○○초등학교였습니다.

그동안 교직 생활을 하면서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겪게 되는 학생들의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은 가정과 학교에서 기본생활습관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초등학교는 기본생활 습관 지도를 통해 학생들이 인성교육을 함양시킨다는 주제를 갖고 시범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저는 과학부장이었지만 교육자료전 등에서 입상한 경험이 있었기에 자료제작 분과의 팀장으로 임명되어 자료 제작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자료 제작은 많은 시간동안 선생님들과 협의하여 자료 제작의 초안을 마련하였고, 수정과 수정을 반복하여 6개월에 걸친 노력 끝에 자료 제작을 완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각 교실로 투입하여 2년간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모든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지도하였습니다. 학교 자체가 인성교육의 장이 되었습니다. 학급에서도 실천 위주의 기본생활습관 지도에 중점을 두고 반복적인 지도와 더불어 학생과의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2003년 인성교육실천사례연구대회 3등급 수상,
-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실천사례집 편집위원 위촉(2003~2004)
- 2006년 초등 생활지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제2청 집필위원 위촉

초등과학교육 활동으로 학생들의 창의성 향상에 역량 발휘

저는 대학에서 과학교육과를 졸업하였기에 학교 현장에서 과학교육 전반에 걸쳐 업무를 맡다 보니 자연스럽게 과학교육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컴퓨터도 핸드폰도 없고 마땅한 놀잇감도 없던 시대 학교에서 가르쳤던 과학상자 조립 모형 항공기를 만드는 일은 학생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매년 학교에서는 과학의 날을 맞이하여 여러 과학행사를 개최합니다. 저는 과학부장으로 각종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학교에서 입상한 어린이들은 따로 선발하여 지역교육청 및 도교육청 대회에 참가시키기 위해 밤늦도록 열정을 쏟아 학생들을 지도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과학조립상자, 모형항공기, 발명품경진대회 등 각종 과학경진대회에 학생들을 지도하고 출전시켜, 많은 수상실적을 거뒀습니다.

또한 방학 중에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연과 실험연수라는 것이 있는데 지역교육청 및 경기도과학교육원에서 수년간 강사로 활동하였습니다.

개인 연구활동에도 과학전람회 및 교육자료 전시대회에서 매년 참가하여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학습자료들을 개발하여 출판하여 수상하였습니다

- 각종 과학경진대회 심사위원 위촉(10회), 지역교육청 및 과학교육원 과학과 강사 위촉(9회)
- 경기도교육자료전 및 과학전시회 연구대회(도대회 1등급 4회, 2등급 1회 3등급 5회 수상)

독서교육 정책연구학교 연구부장으로 독서교육 활성화 기여

○○에서 8년간의 교사 생활을 접고 멀리 떨어진 ○○으로 전근을 가게 되었습니다.

발령을 받아간 곳은 전교생이 100여명 남짓한 6학급의 소규모 학교였습니다.

처음으로 연구부장을 맡게 되었고, 독서교육을 활성화시키라는 교장선생님의 지시를 받고 큰 고민과 걱정에서 사로잡혔습니다. 막상 열악한 농촌 학교의 도서실을 리모델링하고 독서교육을 활성화시키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학교나 교육 당국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교육적 신념과 의지 하나로 밀고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는데, 때마침 교육부지정 독서교육 정책연구학교 계획서를 공모하여 당선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농촌학교의 열악한 독서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기에, 방학 중 독서교육 연구학교 계획서를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 동료 교사들도 모두가 내 일처럼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농촌 학교의 열악한 독서환경과 학교도서관을 활성화시키고 학생들의 독서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다음과 같은 일들을 수행하였습니다.

학생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낙후된 학교도서과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독서교육을 위한 기반이 조성된 후 보다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서실 이용수업(학년 별 주1회), 야간 도서실 개방을 통한 학생 및 지역주민 독서교육 강화, 매일 아침 10분독서 운동, 매주 수요일 외부자원을 활용한 독서감상력 제고, 졸업시까지 600권 책 읽기, 다양한 독후 활동 등을 통하여 독서교육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03년 독서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모범공무원 국무총리상 수상

교실수업개선 및 각종 교육 지원단 활동

2000년 이후 학교 현장에는 '19세기의 교실에서 20세기의 선생님들이 21세기의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비판이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공교육의 부실 문제가 각종 언론의 질타 대상이었습니다. 학교 현장의 현실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보도한 면도 없지 않았지만 학교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과 대책이 쏟아져 나왔고, 위기의 원인이 무엇이든간에 교사의 수업 전문성이 부족하니 교실 수업 살리기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전국의 많은 학교 현장에서는 교실수업을 개선하고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실수업개선 연수 및 시범학교 운영이 유행처럼 성행하였습니다.

■ 수업 분석과 자기·동료장학을 통한 교실수업개선에 노력

교실수업개선 시범학교 연구부장으로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수업분석과 자기·동료장학을 통한 교실수업개선이었습니다. 수차례 연수를 통해 동료교사들에게 자기 수업 녹화 분석을 통한 자기 수업브랜드 갖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처음엔 많은 교사들이 불만이 많았지만, 연수를 통해 교실수업개선에 대한 방향성을 이해 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시간이 갈수록 모든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셨습니다.

동료들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교수·학습지도안을 구안하여 수업에 임하고, 동학년별로 공동의 사고를 통해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천과제를 정하여 실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에게 수업 참관의 기회를 제공하여 수업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교사의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사 자신의 수업 개발을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지역교육청 수업 컨설팅 지원단 활동

교실수업개선 시범학교 운영으로 지역교육청 수업컨설팅 지원단에 위촉되어 교실수업개선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지역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사 연수에 강사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의 컨설팅 요청이 들어오면 학교를 방문하여 수업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계신 선생님들의 고충과 문제점들에 대해 자문해주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 경기도교육시책 추진에 따른 장학자료 수행평가의 이론과 실제 개발위원(2000)
- 교단선진화와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연구위원 위촉(2001~2002)
- 경기도교육청 초등체육교과 교육지원단 위촉(2005)
- 경기도교육정보원 정책연구 모니터위원 위촉(2006)
- 교실수업개선 유공교원 선발 북유럽 4개국 교육선진학교 탐방 해외연수(2006)

교원능력개발 평가 선도학교 운영

김영삼 정부 이후 줄곧 교육개혁안에 항상 들어있었던 것이 교원평가의 실시였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목적을 두고 교원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진단하여 개선하는 등 다면적 평가를 실시하여 무한 경쟁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공교육이 신뢰받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면 시행을 앞둔 2007년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로 지정되어 교원평가 방법 및 평가 지표 선정, 학부모 학생에 대한 홍보 및 연수 방안 강구 등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운영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운영 유공 교원으로 교육부장관상 수상(2007년)



기초·기본교육을 위한 학생중심교육과정 운영

학습부진 학생 맞춤형 책임지도를 통한 모든 학생의 성장 지원하기 위해 학기 초, 학생의 기초 학력 도달 여부와 발달 특성 및 잠재적 역량을 염두에 두고 기초학력 수준을 진단하였고, 이를 토대로 방과 후 시간 등을 이용한 담임교사 책임지도와 외부강사 프로그램을 병행하면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학습에 소홀하기 쉬운 방학에는 캠프형 특강을 운영하여 집중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외부 강사의 기초학습반과 기초학력 담당교사의 기본학습반 두 트랙(two track)으로 실시하여 세세한 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두드림학교를 운영하여 학습 지도와 더불어 배움이 느린 학생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심리정서 상담활동을 통해 자존감 향상 및 학습동기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학습 상담 외에도 원에 체험활동, 조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마을과 학교의 협업을 이끄는 '동(洞)네언니' 동네언니교육과정을 운영하여 3~6학년을 대상으로 창의융합형 소프트웨어 코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문화·예술융합프로젝트 운영

혁신교육지구 사업 일환으로 학교 수업시간에 문화, 예술, 분야의 다양한 활동을 마을교사와 배우는 '문화·예술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는데 본교는 예술체육융합프로젝트 사업으로 1인 1악기(1인1기) 사업과 연계하여 1~2학년은 난타, 3~6학년은 바이올린, 5~6학년은 바이올린, 장구, 난타, 국악 등을 지도하였습니다. 스스로 재능 있는 분야를 발견하는 시간으로, 한 학기 프로젝트식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르테 지원을 활용한 예술수업은 연극분야를 3~6학년을 대상으로 예술강사와 함께 협력 수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도심학교 지원사업으로는 학교오케스트라 현악부를 운영하였습니다. 원도심학교 지원사업으로 전학년을 대상으로 실생활과 연계된 생태환경 교육, 인문환경 교육, 다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학생중심 어울림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생주도형 자치활동 운영은 학생자치회 주도로 학교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도록 하였고, 월 1회 온·오프라인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게시판を活用하여 분기별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교육복지 희망 심기 사업은 교육소외계층 아동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6학년 각 반 1명씩 국어, 수학교과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과 심리·정서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순회상담은 WEE센터 상담교사를 주 1회 학교 상담실로 초빙하고 담임교사와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으로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을 수시로 신청하여 상담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주간을 운영하여 전 학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평화공동체 프로그램과 다가치평화학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4학년 대상 전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급 또래 상담 및 친교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교육 지원으로 이중언어강사 활용하여 전 학급 10차시 수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침맞이와 교통 지도

교감을 발령을 받고 지금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6년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해 온 일과 중 하나는 등교하는 학생과 인사를 나누는 아침 맞이입니다. 학교 정문에서 8시 20분부터 9시까지 40분간 등교하는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추운 날, 무더운 날, 비오는 날은 하기 싫을 때도 있었지만 등교하는 학생들과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나누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활동은 저에게는 매우 소중한 일과가 되었으며 하루하루 보람을 찾고 봉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2019년 학교안전문화 활성화 유공 교원으로 교육감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학교 정문에서 교통봉사 및 아침 맞이는 교장이 되어서도 꼭 실행할 것입니다.

폐교 위기의 학교 살리기를 위한 행정 업무 개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18조 1항 '입학할 학교의 변경에 따른 학교장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싶은 생각을 하는 학부모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인근 지역 학교들이 과밀학급으로 자녀가 성장 발달이 부족하다고 여기시는 학모님들께서 자녀가 다인수 학급에서 혹시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시고 우리 학교에 보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장 전입은 불법이기에 교육법에 허용된 학교장재량 입학허가제를 활용하여 폐교 위기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초등예비교사 현장실습 협력학교 운영(2017~2019)

○○초등학교에서 5년간 교감으로 재직하면서 ○○교대 예비교사들이 교직 현장에 대한 이해와 수업 능력의 신장을 바탕으로 미래 교육 현장에 적합한 교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예비교사 현장실습 협력학교'를 3년간 운영하였습니다.

3주간의 기간 동안 예비교사들은 대학에서 배운 이론 및 원리 등을 교육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교사의 자질을 함양시켰으며, 초등교육 현장의 이해 및 수업능력 신장을 위한 실제적인 교직사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비교사 컨퍼런스를 통하여 예비교사들이 현장 실습 기간의 배움을 전 교원과 나누고 우수사례 및 소감 등을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 활성화를 통한 소통과 공감의 학교문화 조성

학부모 참여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사업비를 받아 학습 동아리를 조직하였고 사물놀이, 인형극, 드론 등을 학생들에게 공연하기도 하고 교육하기도 하였습니다. 학부모회의 행사가 많다 보니 신청하는 물품들을 품의하는 작업은 교감이 처리해주었습니다. 학부모회 간담회는 월 1회 학부모협의실에서 개최하여 학부모들의 의견들을 듣고 소통하였습니다.

- 초등예비교사 현장실습 협력학교 교육감 표창(2017~2019)
- 혁신학교 운영(종합평가교) 교육감 표창(2019)
- 민주시민교육 유공 학교 교육감 표창(2019)
- 학교안전문화 활성화 유공 교원 교육감 표창(2019)
- 학부모 참여 지원사업 유공 학교 교육감 표창(2020)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학교현장은 이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학생들이 단 한 명도 없는 텅 빈 교실에서 나홀로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봐야 하는 날들이 이어졌고, 학교에 등교해서도 선생님과 학생들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한 채 마스크를 쓰고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학교 현장의 이러한 상황과 모습들을 보면서, 세삼 학교와 학생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코로나 19라는 재난의 시대에 공모교장 지원자로서

- 나는 어떤 교장이 되려 하는가?
- 내가 그리는 학교는 어떤 모습인가?
- 나는 학생들에게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가? 등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게 됩니다.

배곧라운초는 65학급의 전교생 1700명이 넘는 학생이 생활하는 초과밀 학교입니다.

솔직히 저의 부족한 역량과 리더쉽으로 이 큰 학교를 잘 경영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였지만, 교육공동체와 함께 만들어간다는 생각과 신념으로 지원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배곧라운초의 교육공동체가 정성을 들여 다듬고 가꾸며 실천했던 우수한 교육활동들은 앞으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미래교육의 방향과 매우 맞닿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육활동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고스란히 계승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 보다는 학교 경영의 지향점을 학생을 중심에 두고 교육공동체와 함께 다음과 같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마음껏 뛰어놀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의 학교,
다양한 삶을 상상하는 아이들, 생각하며 배우는 느린 교육,
학생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교

우리가 바라보는 저 꽃들이 모두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가 올려다보는 저 별들이 모두 빛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아이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성공하도록 도와주고 안내함으로써
우리도 더불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이 삶의 목적이고 진실임을 확인합니다.